
동학사상 연구사 검토: 하늘, 사람, 교육*

박균섭(경북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동학의 발생사적 기간정신, 동도주의적·자주적 문화계몽운동
- III. 동학의 탈정치성과 종교성, 그리고 경천-경인-경물의 원리
- IV. 동학·천도교의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
- V. 결론

국문초록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사상은 보국안민과 적양척왜라는 지도이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동력을 부여했던 사상체계이기도 했다. 동학사상은 1894~95년의 동학농민전쟁과 1905년의 명칭 변경을 거치면서 병든 나라를 구하겠다는 초기 정신은 해석학적 굴절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굴절의 핵심 변수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동학 연구를 통해 주체성 함양에 관한 문제는 물론 아동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논의의 핵심은 동학사상의 초기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사상에 작용하는 일본의 개입 양상과 간섭 요소를 정밀 검토할 수 있어야만 동학 담론의 핵심인

* 이 논문은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8회 국제학술대회(2018.10.20. 동경농업대학 오호츠크캠퍼스)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전편 연구(박균섭, 「일본 시코쿠 변인과 홋카이도 변인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전쟁 재인식」, 『인문과학』 119, 2020)에 이은 후편 연구임.

주체성 문제에 대한 엄밀한 논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최제우, 동학사상, 동학농민전쟁, 해석학적 굴절, 주체성 문제

I. 서론

1860년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에 의해 창도된 동학사상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를 기간정신으로 삼고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 1861~1921)로 이어지면서 시천주(侍天主), 인시천(人是天), 인내천(人乃天)을 골자로 하는 “사람이 곧 하늘”임을 천명한 사상체계였다. 동학농민전쟁(1894.2.~1895.3.)은 동학사상의 본질, 그 상징성을 강력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반역자라는 딱지를 떼고 명예를 회복한 것은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였다.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일컫는다.¹

동학사상이 창도 당시의 잠행하는 포교의 단계에서, 집단적 시위운동으로,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7177호, 제정 2004.3.5. 시행 2004.9.6.]에 관해서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함. 참고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진원재관부 2005헌마119, 기각 2005.12.22.] 판시사항에 관한 결정요지에 의하면, 본 특별법은 “국회가 동학농민사건에 대한 그 동안의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종전에 ‘동학당 또는 동학무리의 난’으로 부르던 것을 ‘동학농민혁명’이라 명명하고 ‘비적 또는 비도’라고 부르던 것을 ‘혁명참여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 회복 및 유족 범위에 관해서는 “후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삼을 것과 “동학농민사건이 근 110년 전의 일로서 그 자료수집의 양과 신뢰도가 모두 부족한 경우가 많고, 명예의 감정이나 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없어지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거론하였다. 이상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9년 9월 20일 접속) 참조. 그런데 1871년 3월 10일 교조 수운 최제우의 기일을 기해 일어난 영해동학혁명에 대해, 혁명에 참가하였다가 잡혀서 순교한 사람들은 아직도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오직 1894년 4월과 9월의 동학혁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잘못된 법률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1871년 영해동학혁명의 사료와 자취」,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7~73쪽.

그리고 끊어오르는 동학농민전쟁으로 변이를 거듭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개입과 간섭이 계속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동학농민군 학살 섬멸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근현대사는 전쟁사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연구는 동학농민전쟁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전쟁범죄와 학살만행을 지적·비판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인식의 심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논의는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보여준다.²

1860년에 창도된 동학사상은 1894~1895년의 동학농민군의 전쟁을 통해 그 기간 정신을 구현코자 하였다. 그러다가 동학사상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학의 천도교-시천교 개칭 문제, 손병희-이용구-송병준의 친일 논란이 부각되면서 동학사상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동학-천도교의 이름으로 전개된 아동존중사상과 어린이교육론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일본적 요인·변수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 학살 범죄에 일본군이, 천도교-시천교 개칭 과정에도 친일문제가, 그리고 아동존중사상과 어린이교육론의 설파에도 일본의 영향이 거론되는 것은 자아인식·정체성·주체성을 핵심으로 삼는 교육사상 체계를 위협하는 도전적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근대사 기술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서만 말할 뿐, 동학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개된 또 하나의 전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³ 한국교육사에서는 동학의 교육사상에 대한 논의는 축적되어왔으나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량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전공외적 사안이라 하여 이를 논외로 하거나 별건으로 취급하는 관점을 취해왔다. 이러한 동학 인식과 대응 과정의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동학사상 연구사에 주목하되, 특히 하늘-사람-교육의 문제로 응축되어온 사상적 궤적을 정밀히 점검하는

2. 임병택, 「갑오농민전쟁과 일본사회」, 『동학학보』 20, 동학학회, 2010, 71~118쪽.

3. 中塚明·井上勝生·朴孟洙, 『東學農民戰爭と日本: もう一つの日清戦争』, 東京: 高文研, 2013, pp. 17~28.

작업이 요망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늘-사람-교육 관련 문제 탐색을 특징으로 삼는 동학사상 연구사 분석을 통해, 동학의 발생사적 기간정신으로서의 동도주의적·자주적 문화계몽운동, 동학의 탈정치성과 종교성 관련 논점으로서의 경천-경인-경물의 원리, 그리고 동학/천도교의 소년운동과 아동존중 교육사상의 문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학의 초기정신이라는 말과 기간정신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동학의 초기정신이야말로 변치 말고 계속되었어야 할 정신이라는 점, 그 발생사적 강단을 표상함과 아울러 그 퇴색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 발생사적 기간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음을 부기해둔다.

II. 동학의 발생사적 기간정신, 동도주의적·자주적 문화계몽운동

근대일본의 전쟁사는 무참하게 살육당한 동학농민군, 주권 강탈에 저항한 의병들, 식민 지배를 거부한 3·1운동 참여자들, 관동대지진 때 무방비상태로 집단 살육을 당한 조선인들, 고문당하고 살육당한 독립운동가들, 침략전쟁에 강제로 내몰린 조선인들,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되어 심대한 고통을 당한 조선의 여성들에 대한 논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⁴ 하지만 일본의 역사교육론에서 학살만행과 전쟁범죄로 점철된 근대일본의 전쟁사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이다. 일본 근대사에는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살육당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역사 서술은 없다. 전쟁을 반성의 대상이 아닌 미화의 대상으로 기억할 뿐인 그들에게 야만의 전쟁은 문명의 전쟁으로 포장되어 거리낌 없이 유포되었고, 그 전쟁·침략·지배의 메커니즘에 따른 일본군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학살만행과 전쟁범죄 역시 상당부분의 사실을 은폐하였다.⁵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항쟁'이나 '농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보다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민의 저항을 '반란', '반항', '폭동', '민란' 등의 말을 섞어 쓰고 있다. 게다가 동학

4. 이재승,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민주법학』 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271~277쪽.

5. 박균섭, 「일본 시코쿠 변인과 홋카이도 변인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전쟁 재인식」, 『인문과학』 11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103~133쪽.

농민혁명의 반침략·반일적 성격을 거세하고 그 의의를 종교운동에 한정시키는 역사 위조행위를 저질러왔다.⁶ 동학사상의 정체성 탐구과정에서 간혹 동학운동을 종교 범주에 가두려는 움직임을 접하게 된다. 동학의 종교적 성격을 읽어내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종교의 틀 안에 가두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후기의 정치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정치였다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리 만무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삼정문란과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로 인한 원망과 고통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일이다. 정신사적으로 시천주-인시천-인내천으로 이어지는 지도이념, 그 기간정신에 유의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당시는 어느 때보다도 국왕과 통치계급의 대분발-대진작이 절실한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학사상은 그 기간정신과는 판판의 정치·군사적 변전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소탕을 빙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이를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圭, 1855~1907)는 다른 나라 군대가 도성 안에 들어왔는데도 임금은 태연히 아무 방비도 하지 않는다고 신랄히 비판하였다.⁷ 이남규는 조선이 대분발-대진작을 통해 일본군을 불러들이지도 말고, 들어온 일본군을 몰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만행을 거드는 행태를 문제삼은 것이다.

동학은 척사를 지향하면서도 유교적 가치에 근거한 위정은 거부하고 변법을 지향하면서도 외세의존적 개화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⁸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은 포덕천하(布德天下)-보국안민(輔國安民)-광제창생(廣濟蒼生)을 3대 실천 목표로 내세우면서, 척사와 변법에 근거하여 민중 구제를 지향했는데, 이는 19세기 이래 핵심 화두였던 내정 개혁과 외세 대응의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코자 한 접근법이었다.⁹

최제우의 사상과 가르침은 최시형에 의해 『동경대전』(인제, 1880)과 『용담유

6.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2006, 209~210쪽, 219쪽, 229쪽.

7. 『修堂集』, 遺集冊三, 「論匪擾及倭兵入都疏」, 154~160쪽.

8. 황위주, 「한말 지식인의 동향과 동학」, 『영남학』 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7~8쪽.

9. 위의 글, 47쪽.

사』(단양, 1881)로 집성되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지향점은 사람[人]과 하늘[天]을 두 축으로 삼는 인덱스화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고, 수심정천(守心敬天), 보국안민, 수심정기(守心正氣), 성(誠)·경(敬)·신(信) 등의 범주화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¹⁰ 최제우가 처형될 무렵 약 3천여 명의 신도가 15개의 조직[회]을 구성할 정도였으나, 최제우를 신원하기 위한 공주집회(1892.10.), 삼례집회(1892.11.), 광화문복합상소(1893.2.), 보은집회/금구원평집회(1893.3.)를 거치면서, 마지막집회에는 약 7~8만 명의 동학교도가 모일 정도로 교도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동학 운동사의 중대한 변곡점을 이룬 사건으로 이필제가 최시형을 설득하여 일으킨 1871년 3월 10일의 영해 봉기를 들 수 있다. 1871년 3월 10일(*1864년 3월 10일은 동학 창시자 최제우가 처형당한 날)을 기해 이필제는 최시형을 설득해 영해 봉기를 주도하였다. 영해란은 이필제-최시형 연합조직이 영해 관아를 기습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부정하게 재물을 탐했던 탐관오리 영해부사를 살해한 사건이다. 조정에서는 이를 영해적변(寧海賊變)=조령적변(鳥嶺賊變)이라 명명했다.¹¹ 그런데 영해적변=조령적변의 진압과 그에 따른 논공행상의 결과로, 최제우의 처형 이후의 동학은 사도(邪道), 동학사상은 불온사상(不穩思想), 동학가담자는 반역자(反逆者), 동학농민군은 반군(叛軍), 그들의 활동은 난(亂)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고, 이는 영남을 기반으로 창도한 동학, 호남을 거점으로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분리·분화 현상을 낳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¹²

10. 이호영, 「인덱스방식으로 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人·天 개념」, 『동학학보』 16, 동학학회, 2008, 5~34쪽; 임태홍, 「동학 연구 20년의 회고(1995~2014): 신관, 신비체험, 그리고 비교연구」,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61~92쪽.

11. 『承政院日記』 1871년(高宗 8) 6월 22日, 9月 1日.

12. 신진희, 「1894년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 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영호남 동학운동의 재조명』, 경북대학교 박물관, 2018.12.20, 85쪽, 91쪽 및 이를 수정·보완한 논문 신진희,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 『영남학』 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53~79쪽 참조. 영해 민중 봉기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이필제의 동학 관련 정체성을 살피고 이 봉기는 과연 동학적·혁명적 특성을 띠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필제가 주도하고 최시형이 참여한 영해 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형태의 근대적 요소(개인 권리의 신장, 사회계약을 통한 성장)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동학정신을 뿌리까지 흔들어놓을 반생명적·반동학적 폭력이 자행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상욱, 「이필제와 최시형: 영해 동학 '혁명'의 선도적 근대성」,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211~246쪽.

최시형이 교주로 있던 시기(1863~1897)에, 고종과 일부 중앙관료가 주도하는 개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척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개국을 이슈로 한 잦은 정치적 대립과 정변으로 인해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남에 따라 포덕천하-보국안민-광제창생이라는 구호는 어느 때보다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¹³ 최시형은 동학의 성장세에 힘입어 그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동경대전』(인제, 1880)과 『용담유사』(단양, 1881)를 간행·보급하였고, 척양(斥洋)-척왜(斥倭)의 기치를 내걸었다.¹⁴ 최시형은 최제우가 정립한 변법적 교리에 물물천(物物天)-사사천(事事天)-사인여천(事人如天) 같은 범천론(汎天論)에 입각한 해석을 추가할 수 있었고¹⁵, 그 토대 위에서 동학농민전쟁은 동학의 핵심적 실천 목표였던 보국안민과 척양척왜, 이를 다소 변형한 소제왜양(掃除倭洋), 소파왜양(掃破倭洋), 제폭구민(除暴救民) 등과 같은 구호를 깃발-벽보 형태로 게시할 수 있었다.¹⁶ 동학의 기간정신에 대한 정밀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는 최시형과 전봉준의 엇갈림에 주목하는 가운데, 최제우-최시형-손병희로 이어지는 계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 그 논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¹⁷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 그 궤적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다산

13. 황위주, 앞의 글, 2019, 7~51쪽.

14. 위의 글, 41~42쪽.

15. 위의 글, 42쪽.

16. 위의 글, 43쪽.

17. 우리는 흔히 최시형-손병희 계열을 북접(北接), 전봉준 계열을 남접(南接)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남접-북접이라는 말은 서로를 상대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 아니며, 엄밀히 말하자면 북접이라는 용어가 있을 뿐이다.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1860)한 직후, 교세가 경주부근과 경주이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경주부근의 포덕은 주로 수운 최제우가 직접 담당했고, 경주이북지역의 포덕은 해월 최시형이 담당했다. 1863년 7월에 최제우는 최시형을 경주이북의 동학 포덕 책임자인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했는데, 1880년대에 북도중주인은 '북접주인(北接主人)'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북접이 동학교단 내의 특정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듯이 소위 남접과 대립되는 용어도 아니었다(황현, 김중익 역,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2016, 214쪽의 역자주 참조). 1894년 8월~12월의 기록으로, 양상재를 교수(教授)에 임명한 첩지(1894.8.), 박용빈을 봉령(奉令)에 임명한 첩지(1894.10.), 송칠룡을 대정(大正)에 임명한 첩지(1894.12.)에는 첩지 발급자 최시형이 자신을 '북접 법헌(北接法軒)'으로 표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편,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민족문제연구소, 2010, 36쪽) 본 글에서는 북접의 발생사에 유의하여, 최시형에서 손병희로 이어지는 계열을 설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약용이 1809년(순조 9) 귀양지 강진에서 친구 김이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호남일로에 근심스러운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백성의 소요[民騷]이고 하나는 관리의 탐학[吏貪]이다”고 했던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⁸ 이는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이 동학의 발생사적 초기 정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94년 1월, 전봉준(全琫準)은 농민 60여명과 함께 고부관아로 모여들어서 조병갑의 탐학을 열거했는데, 그 배경에는 고부군 향교의 장의를 지냈던 그의 아버지 전창혁(全彰赫)이 조병갑(趙秉甲)을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장살을 당한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¹⁹ 전봉준이 동학교도였는지, 동학에 입교한 시점은 언제였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전봉준은 체포된 후에 취조에 답하는 과정에서 동학에 입교한 주목적이 종교적 입장보다는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²⁰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이 보여준 동력은 적어도 동학사상과 그 동학교도들의 응집력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²¹ 전봉준은 전국의 다른 동학 지도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고 1894년 5월 4일에는 약 13,000명의 민중이 고부에 모여들었다. 동학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종교가 아닌 민족적 차원의 궤적, 그리고 지도자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이 차지하는 역사적·민족적 관점에 대한 성찰적 논의 또한 동학의 중심 지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학을 종교보다는 민족운동으로 인식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이를 반(反)동학적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동학의 특징적인 장면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²²

18. 『興猶堂全書』, 詩文集卷19, 「與金公厚」, 15쪽.

19. 이건근, 「전기(傳記) 영화 <비바 자파타>(Viva Zapata!)에 유추한 전봉준 영화 그리기」, 『용봉인문논총』 4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94쪽.

20. 위의 글, 194쪽.

21. 위의 글, 194쪽.

22.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6종에서는 종교로서의 동학에 대한 서술보다는 동학농민운동이 지니는 사회·정치적 의의와 역사적 평가가 주된 서술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과 지식의 일부에 불과한 동학”이자 “과거 역사의 한 사건으로 기억될 뿐인 동학”이라면서 이를 반동학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김경진·임상욱, 「동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접근 경로에 대한 연구: 2009 개정

전봉준은 공초문에서 동학이 지향하는 바를 묻는 재판관(徐光範=Kenneth Suh)에게 “마음을 지켜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안민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동학의 핵심과 본연을 “수심경천의 도[守心敬天之道]”라고 제시하였다. 동학의 2차 봉기[再次起包]와 관련하여 동학의 2세 교조인 최시형과 의논하였는지를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충의는 각자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최시형에게 의논한 후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답하였다.²³ 전봉준은 일본군이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 점거한 사실과 이로 인해 촉발된 전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94년 9월 18일 10만 명에 이르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하여 제2차 봉기를 일으켰다. 동학 연구에서 농민의 저항을 민중운동의 줄기로 보고, 집강소 활동을 부각시키고,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루는 접근이야말로 동학의 초기정신, 그 생동하는 모습을 제대로 응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1991년에 개봉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개벽>(시나리오: 김용옥, 감독: 임권택)에서 전봉준은 무수한 희생자만을 내고 동학교단 조직을 결판내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²⁵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최시형은 이를 두고 “30년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말했는데, 최시형의 그 말 한마디는 새로운 미래 세상을 만든다는 동학의 초기 정신으로서의 개벽은 현실 속에서는 이미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²⁶ 동학사상을 논하는 장면에서 간혹 탈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6종에 나타난 동학의 내용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동학학회, 2013, 137~169쪽.

23. <全琿準再招問目>(1895.2.11) 전봉준은 1895년 2월~3월에 5차에 걸쳐 일본 영사관에 설치된 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았는데, 1차, 2차, 3차 전반은 서광범이 심문하였고, 3차 후반, 4차, 5차는 일본 영사가 직접 심문하였다. 5차에 걸친 전봉준공초는 총 27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全琿準初招問目>(1895.2.9.), <全琿準再招問目>(1895.2.11.), <全琿準三招問目: 續日領事問>(1895.2.19.), <全琿準四招問目: 日領事問>(1895.3.7.), <全琿準五次問目: 日領事問>(1895.3.10.)]

24. 이이화, 「동학 농민군 역사 살려낸 향토사학자들」, 『한겨레』, 2011.1.23.

25. 최병학, 「동학과 트랜스-로컬, 주체와 공생의 성취 그 관계적 네오-휴머니즘: 영화 <동학, 수운 최제우>와 <개벽>을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2),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45~178쪽.

26. 이이화, 「역사를 왜곡한 김용옥의 시나리오 개벽」, 『역사연구』 17, 역사학연구소, 1991, 393~396쪽; 이이화, 「동학 농민군 역사 살려낸 향토사학자들」, 『한겨레』, 2011.1.23. 동학혁명을 다룬 『녹두장군』, 『동학제』, 『갑오농민전쟁』, 『동트는 산맥』은 동학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다루면서 특히 최시형의 형상

정치와 과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거나, 동학의 종교성을 내세워 신비주의적 지향을 당연한 접근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과는 맥락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전쟁이라는 ‘항전의 유산’은 을미의병(전기의병)·을사의병(중기의병)·정미의병(후기의병) 투쟁, 3·1 독립 운동, 해방 후 민주화 운동의 정신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상기할 일이다.²⁷

III. 동학의 탈정치성과 종교성, 그리고 경천-경인-경물의 원리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논점은 최제우의 시천주²⁸→최시형의 인시천²⁹→손병희의 인내천³⁰의 구조로 변이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시형은 최제우의 ‘시천주’라는 말을 이어받아 “사람이 바로 하늘이요 하늘이 바로 사람이니[人是天天是人] 사람 밖에 하늘 없고 하늘 밖에 사람 없다[人外無天天外無人]”는 관점을 제시하였다.³¹ 최시형은 시천주-인시천의 자장 안에 심즉

화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가 무혈혁명을 주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녹두장군』은 최시형을 소심하고 고집스러운 교주의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동학계』는 최시형을 믿을 수 없는 수렁으로, 『갑오농민전쟁』은 최시형을 조정과 관의 눈치를 보느라 동학군들을 울러대는 미숙한 인물로, 그리고 『동트는 산맥』에서는 최시형을 부지런한 교주이지만 역할이 분명치 않고 다소 허황된 존재로 그려냈다. 이를 종합하면 최시형은 소심하고 고집불통이고 도만 알고 백성의 고통은 모른 채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는 혁명적인 인물의 형상화가 요구되는 특수상황에서 최시형의 비폭력 정신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김춘옥, 『동학 대하소설에 나타난 해월의 형상화 연구』, 『동학학보』 36, 동학학회, 2015, 77~110쪽.

27. 이진근, 앞의 글, 202~204쪽.

28. 『東經大全』, 2, 「論學文」, 附錄, 「呪文」, 윤석산 역해, 『동경대전』, 동학사, 1996, 49~112쪽 및 201쪽. 『고종실록』에서는 시천주(侍天主)와 위천주(爲天主)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였다(『고종실록』 1863년(고종즉위년) 12월 20일). 최시형이 말한 양천주(養天主)도 최제우의 시천주에 대한 해석학적 재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海月神師法說』, 25, 「養天主」, 천도교중앙총부 편, 『신사성사법설』,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6, 174~175쪽) 이를 동학의 신관·신비체험에 입각하여 정리한다면 최제우→최시형→손병희로 이어지는 신관을 시천주(侍天主)→양천주(養天主)→인내천(人乃天)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를 시천주(侍天主)→양천주(養天主)→각천주(覺天主)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태홍, 『동학 연구 20년의 회고(1995~2014)』: 신관, 신비체험, 그리고 비교연구,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61~92쪽 참조.

29. 『海月神師法說』, 7, 「待人接物」, 천도교중앙총부 편, 74~84쪽.

30. 위의 책, 387~404쪽.

31. 『海月神師法說』, 22, 「天語」, 24, 「以天食天」, 천도교중앙총부 편, 169쪽, 172~173쪽.

천을 포함시켜 “마음이 곧 하늘이요[心卽天] 하늘이 곧 마음이니[天卽心] 마음 밖에 하늘이 없고[心外無天] 하늘밖에 마음이 없다[天外無心]”고 하면서 “마음과 하늘이 서로 어긋나면[心天相違則] 사람들이 모두 시천주라고 할지라도[人皆曰侍天主] 나는 시천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吾不謂侍天主也]”는 견해를 덧붙였다.³² 손병희는 최제우의 시천주에 대해 “대신사는 우리 교의 원조이시다[大神師吾教元祖]. 그 사상이 넓은 데로부터 간략한 데 이르렀으니[其思想博從約至] 그 요지는 인내천이다[其要旨人乃天]”고 정리하였다.³³

최제우에 의한 동학사상의 초기정신은 동도주의(東道主義)에 입각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³⁴ 그런데 동학농민전쟁을 겪으면서, 동학의 초기정신은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영학당(英學黨)과 활빈당(活貧黨)의 형태로 반외세 민족운동 노선을 고수하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발 문명개화론(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문명개화론)의 수용을 통해 근대화·문명화에 매진하자는 입장도 등장하였으며, 그 에너지는 상당히 강력한 것이었다.³⁵

동학농민전쟁 이후 최시형은 김연국, 손병희, 손천민 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김연국에게는 귀암(龜菴), 손병희에게는 의암(義菴), 손천민에게는 송암(松菴)이라는 호를 부여하였다. 1898년(대한제국 광무 2)에 최시형과 손천민이 붙잡혀 처형되자, 손병희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 상해에 망명했다가 이어서 1901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손병희가 동경에 있을 당시에는 이상헌(李祥憲)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손병희는 일본에 있으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으며(1905.12.1.), 1906년 1월에 귀국한 이후로 동학/천도교의 종교성은 더욱 짙어졌다. 1904~1905년 무렵에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 중 상당수가 독립협회의 잔당과 연합하여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 또한 동학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사항이 아닐 수 없다. 진보회(進步會)-유신회(維新會)-일

32. 『海月神師法說』, 4, 「天地人鬼神陰陽」, 천도교중앙총부 편, 48~55쪽.

33. 『義菴聖師法說』, 7, 「大宗正義」, 천도교중앙총부 편, 387~404쪽.

34. 김정인,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동학학회, 2004, 63쪽.

35. 위의 글, 63~93쪽.

진회(一進會)의 통합 과정과 손병희-이용구-송병준의 관계역학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시 동학 관련자들의 책임과 과제는 무엇이었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 러일전쟁 당시 송병준은 일본군을 등에 업고 전 독립협회 회원 윤시병, 유학주, 염중모를 포섭해 유신회를 조직(1904.8.18.)하고 이를 바로 일진회로 바꾸었고(1904.8.20.), 이용구가 이끄는 동학교단의 민회단체인 진보회³⁶와 통합하여(1904.12.2.) 세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였다.³⁷ 일진회는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의병을 폭도로 매도하고 자위단(自衛團)을 조직하여 의병 토벌과 진압에 나섰다. 사람들은 자위단이 쓰고 돌아다니는 납작모자(도리우치), 일명 일진회모자를 반역의 왕관처럼 증오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들의 행태를 “매국과 배족, 부끄러운 자화상: ‘반역의 왕관 도리우치’를 쓴 일진회원들”이라고 표상하였다.³⁸ 동학을 이어받은 천도교는 친일적 문명개화론과는 변별되는 문명개화운동을 표방하였다. 손병희는 진보회가 일진회로 넘어간 시점에 일진회와 선을 긋는 차원에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손병희로부터 밀려난 이용구가 손병희의 천도교에 대응하여 만든 동학의 변형체가 시천교였다. 천도교의 문명개화운동이 친일적 문명개화론과 변별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보회의 행방, 그 구조와 성격을 정밀 검토하는 작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최시형을 이은 북접의 지도자 손병희는 1904년에 문명개화파의 세계관과 독립협회의 민회운동을 수용하여 동학교도를 대상으로 한 진보회를 조직하고 갑진개화운동의 이름으로 일본 동맹론을 표방하면서 일본군의 전쟁을 협력·보조하는 데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일진회와 진보회는 공식 합병했다(1904.12.2). 북접의 지도자 손병희의 행보를 통해 볼 때, 갑진개화운동³⁹은 대

36. 손병희가 일본 도쿄에서 동학 지도부에 지시하여 만든 민회단체가 대동회(1904.3)와 중립회(1904.7)를 거쳐 확정한 진보회였다.(1904.8.30) 한편 송병준은 일본군을 등에 업고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윤시병, 유학주, 염중모 등을 포섭하여 유신회를 조직(1904.8.18.)하고 이를 바로 일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904.8.20)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1904년 12월 2일, 진보회와 일진회는 통합하여 하나의 길을 갔다. 당시 민회단체의 얼굴을 표상했던 언어계열은 대동-중립-진보-유신-일진이었다.

37. 민족문제연구소 편,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민족문제연구소, 2010, 56쪽.

38. 위의 책, 56~57쪽.

39. 갑진개화운동은 1904년 동학의 제3세 교조 손병희 등의 동학교도들이 일본과의 협력으로 위기에 처

내외적으로 동학의 주류가 문명개화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었고, 이는 동학의 발생사적 기간정신이었던 동도주의적·자주적 문화계몽 운동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⁴⁰

동학의 시천주를 근간으로 표방했던 보국안민-척양척왜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변질되었다.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자 『제국신문』을 통해 ‘천도교 대도주’의 명의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다는 광고를 냈다.⁴¹ 그리고 손병희의 제자 이용구는 천도교에서 출교를 당한 후 시천교를 창시하였다. 손병희가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1906년 일진회와 결별했던 것은, 적어도 그가 일진회의 노골적인 친일행보(한일합방론)와는 거리 두기를 분명히 했음을 의미한다.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1910년 시점의 종교지형에 대해 “불교는 종교로서는 사멸의 길에 접어들었고, 달리 시천교, 천도교, 그 외 음사사교(淫祠邪敎)가 백성의 신앙을 모아 조선의 종교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던 말에 유의할 일이다.⁴²

한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는다는 운동을 말한다.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단발(斷髮)을 하고 흑의(黑衣)를 입는 시위를 통해 민족의 자각과 생활의 개화-혁신을 추진한다는 운동으로, 그 중심에는 1904년 8월 30일에 창립된 진보회가 있었다.

40.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6개의 『고등학교 한국사』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울미의병, 영학당, 활빈당 등 반외세적인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술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 중 다수는 1904~1905년 친일적 개화운동인 진보회(일진회) 운동으로 미끄러졌음에도 유의하여 사실에 맞게교 교과서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95~139쪽) 일본발 문명개화론자들은 민족에 대한 부정과 자학으로 흘러 민족허무주의로 귀착되기 십상이었고, 친일이테올로기를 쉽게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동학-천도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간취할 수 있다. (전용호, 「김인환의 동학 연구와 문학비평」, 『정신문화연구』 3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21~149쪽) 일제강점 후반기로 가면, 천도교세력의 친일문제는 친일논리(시운시변의 변, 대동방주의, 신앙보국주의), 친일조직(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신구각파의 활동, 시국대처부와 천도교연맹), 친일행적(일상적 친일행적, 대외적 친일행적, 일제당국과의 관계) 등의 형태로 길게 드러났다.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 천도교세력의 친일문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2001, 189~218쪽) 다만 정혜정은 천도교의 문명개화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문명개화가 아니라 동학사상에 바탕을 둔 천인(天人)의 민주공화체제를 지향한 것이기에 이는 주체적 문명개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문명개화론자 오상준의 『초등교서』(1907)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정혜정 영해, 『동학문명론의 주체적 근대성: 오상준의 『초등교서』 다시읽기』, 모시는 사람들, 2019 참조.

41. 『帝國新聞』, 1905.12.1.

42. 高橋亨, 『朝鮮の物語集附禮諺』, 京城: 日韓書房, 1910; 이시준·김광식·조은애·김영주 역, 『조선이야기집과 속담』, 박문사, 2016, 91쪽.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당 세력은 분리·분산 과정을 거

손병희의 천도교는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을 ‘전봉준의 난(全奉準之亂)’이자 ‘동학란(東學亂)’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동학의 기간정신, 그 정치사회적 역동성을 지우는 방향으로 동학교단의 종교적 정체성을 재정립하였다.⁴³ 대세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문명개화론을 표방했던 손병희에 의한 천도교는 이처럼 인내천의 교리화를 지향하면서 병든 나라를 바꾸겠다는 동학의 기간정신과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은 약화되었다.⁴⁴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손병희는 민족운동의 족적을 크게 남긴 인물로 평가받지만, 러일전쟁 때 일한동맹론을 내세우면서 일본 육군성에 거액의 군자금(1만원)을 낸 일, 한일합방을 주장한 이용구를 상당기간 끌어안은 일, 돈을 민족운동 이외에 마구 쓴 일 등에 대해 엄연한 비판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⁴⁵ 1956년 3월 31일, 3·1독립운동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었던 탑골공원에 난데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다. 1919년 이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탑골공원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정신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했고, 뒤늦게 국가권력이 나서서 그 텅 빈 표상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접수하고 말았다.⁴⁶ 동학의 3대 교주-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 손병희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해방 후의 손병희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3·1독립운동의 본연을 충실히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정신적 배경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다시금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는 3·1독립운동보다는 동학농민전쟁

답했다. 그 분리·분산은 천도교의 각종 분파(侍天教, 太乙教, 安心教, 中心教, 中心侍天教, 濟世教, 濟愚教, 靑林教, 龍潭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큰 줄기를 말하자면, 송병준은 경성에 시천교본부(侍天教本部), 김연국은 경성에 시천교총부(侍天教總部)를 두어 시천교 2파가 있었으며 이들은 천도교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천도교는 3파(천도교, 시천교본부, 시천교총부)로 세력이 나뉘었다. 천도교는 주로 평안도-함경도에 세력을 두고, 시천교본부는 황해도-평안도-강원도에 세력을 두고, 시천교총부는 충청도-전라도에 세력을 두었다. 靑柳南冥, 『朝鮮獨立騷擾史論』, 京城: 朝鮮研究會, 1921, pp. 24~34.

43. 홍동현, 「1900~1910년대 동학교단 세력의 동학란에 대한 인식과 교단사 편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39쪽.

44.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한국사상사학회, 2005, 213~240쪽.

45. 허수, 「해방 후의 암 손병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변천」, 『대동문화연구』 83, 2013, 441쪽.

46. 위의 글, 438쪽.

을, 그리고 손병희 대신 전봉준을 대안적 상징으로 설정하여 동학사상을 재구성하는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⁷

천도교의 전개 과정에서 손병희가 최제우를 대신사(大神師)-천황씨(天皇氏)로, 최시형을 해월신사(海月神師)-지황씨(地皇氏)로 추존하여 신으로 받들고, 자신도 성사(聖師)-인황씨(人皇氏)로 추앙하도록 만든 것은 분명 “사람이 곧 하늘”임을 주창했던 동학의 초기정신에 신비주의 요소를 짙게 가미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⁴⁸ 이는 분명 동학의 핵심사상인 시천주의 본의, 즉 하늘님이 라는 성스러운 존재를 모시는 내 몸과 마음이야말로 성스러운 주체라는 인식의 궤적을 제대로 표상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개벽』과 『천도교회월보』의 동학담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천도교는 동학의 초기정신이 일정부분 탈색되면서 탈정치적인 종교수행/신비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신비주의적 형용과 지향은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초월적 세계인식으로 건너뛰면서 식민담론에 포섭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최시형은 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物)에 대해 말하였다.⁴⁹ 삼경론은 경천-경인을 지나 경물의 지점에 이르러 완성된다. 최시형은 경물을 말하면서 “셋째는 경물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만물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⁰ 경물의 원리는 최시형이 말한 인오동포(人吾同胞)-물오동포(物吾同胞)-이천식천(以天食天)의 개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¹ 동학농민전쟁 당시 불살인(不殺人)-불살물(不殺物)을 표방했던 것도 동학의 기간정신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삼경론의 한 축인 경천의 원리를

47.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허수, 위의 글, 2013, 438쪽, 431~464쪽.

48. 이이화, 앞의 글, 1994; 허수, 앞의 글, 2013, 457쪽에서 재인용. 손병희는 동학천도교의 정계를 자임하면서 교조 최제우의 득도한 날인 4월 5일을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로 하고, 제2세 최시형이 교통을 이은 8월 14일을 지일기념일(地日紀念日)로 하고 자신이 교통을 이은 12월 24일을 인일기념일(人日紀念日)로 칭하였다. 靑柳南冥, 앞의 책, pp. 24~34.

49. 『海月神師法說』, 21, 「三敬」, 천도교중앙총부 편, 165~168쪽.

50. 위의 책, 165~168쪽.

51. 『海月神師法說』, 8, 「靈符呪文」, 21, 「三敬」, 22, 「天語」, 24, 「以天食天」, 천도교중앙총부 편, 81~88쪽, 165~168쪽, 169쪽, 172~173쪽.

앞세워 식민지 특수현실을 초월의 이름으로 비켜가는 탈정치성/무책임성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이는 식민권력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상황에서 천도교가 주체적·성찰적 대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의 시대상황은 동학의 또다른 해석학적 변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말~1980년대까지의 동학담론은 삼경론 중에서 혁명 영웅과 민중의 등장을 집중 조명하는 경인(敬人)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기였으며, 1990년대의 동학담론은 삼경론 중에서 생태·환경 문제까지 아우르는 경물(敬物)의 원리가 부각되는 시기였다.⁵³

일제강점기 이후, 동학사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경천-경인-경물의 논점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경천의 관점을 지나 경인-경물의 관점으로 보여주었다. 1960년대 말~1980년대의 경인의 원리가 반영된 작품으로 최인욱의 『전봉준』, 이용선의 『동학』, 서기원의 『혁명』, 유현종의 『들불』, 박연희의 『여명기』, 안도섭의 『녹두』,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송기숙의 『녹두장군』 등을 들 수 있다.⁵⁴ 신동엽의 「금강」(1967.12.) 역시 경인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시인의 아들 신좌섭은 신동엽의 「水雲이 말하기를」의 “수운이 말하기를/하늘님은 콩밭과 가난/땀 흘리는 사색 속에 자라리라./바다에서 조개 따는 소녀/비 개인 오후 미도파 앞 지나는/쓰레기 줍는 소

52. 우수영, 「한국소설의 동학 담론」, 『동학학보』 43, 동학학회, 2017, 295~331쪽. 동학의 경천의 원리가 아니라도 식민지 특수현실을 초월(탈정치성, 무책임성)의 이름으로 비켜가는 접근법은 식민교육의 기본 접근법이기도 했다.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무한성의 격발(無限性の擊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高橋亨, 「朝鮮佛教の歴史的依他性」,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pp. 171~194; 高橋亨, 「儒教の有する宗教性」,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pp. 195~200)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기독교 역시 한민족의 의식화교육을 철저하게 막고, 도덕적 계몽교육을 통한 서양의 문화보급에 열심이었으며, 그런 방식으로 조선인의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봉쇄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의 정교분리정책과 구원신앙(추상적인 영적 구원과 심령대부흥운동)에 입각하여 계몽·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세력들은 신도도형 방어기제와 달콤한 레몬형 방어기제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는 교묘하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독립 불가설과 한 몸을 이루었다. 기독교한국신문, 「“3·1만세운동의 주체는 기층민중이었다”: 3·1만세운동 97년을 맞아 기독교독립운동을 재검점한다(중)」, 『기독교한국신문』, 2016.2.25.

53. 우수영, 앞의 글, 2017, 295~331쪽.

54. 위의 글, 295쪽.

년/아프리카 매 맞으며/노동하는 김동이 아이,/오늘의 논밭 속에 심귀진/그대들의 눈동자여, 높고 높은/하늘님이어라.”를 인용하면서 경인의 원리를 그 핵심으로 내세웠다.⁵⁵ 작품 분석을 통해서서는 1960년대 말 이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에 동학의 경인의 원리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철학·사상 연구에서는 일찍부터 동학의 경인의 원리에 주목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박종홍은 경인의 원리에 입각하여 동학을 해석하면서 “민중 자체의 밑바닥으로부터 밝혀낸 사상”, “밑바닥으로부터 솟아오른 사상”, “생활고에 허덕인 농민 아니면 장돌뱅이 붓짐장수들이 주동이 되어 이 사상은 실천으로 옮겨(졌다)”고 하였다.⁵⁶

해방이후 1960년대 말~1980년대에는 경인의 원리가 반영된 작품이 많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1990년대에는 경물의 원리가 반영된 작품이 많이 등장했다. 경물의 원리가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정래의 『아리랑』, 박경리의 『토지』, 한승원의 『동학제』,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등을 들 수 있다.⁵⁷ 경물의 원리에 주목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환경 문제 및 그 교육론에 대한 논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IV. 동학천도교의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

최제우가 1860년에 창도한 동학은 국가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성격의 사상체제이기도 했다. 동학사상의 서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운 최제우(1824~1864), 해월 최시형(1827~1898), 의암 손병희(1861~1921), 소파 방정환(1899~1931), 소춘 김기전(1894~1948)으로 이어지는 교육사상과 아동교육론을 다루어왔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논점은 최제우의 시천주→최시형의 인시천→손병희의 인내천의 구조로 변이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몰락한 양반 최옥

55. 신좌섭, 「신좌섭-맹문제 대담(2019.8.16.): 신동엽 시인의 「금강 읽기」, 『푸른사상』 가을호 참조.

56. 박종홍, 「최동희 역, 『현대역 동학경전』의 서문, 1961; 열암기념사업회이사회 편, 『박종홍전집Ⅳ』, 민음사, 1998, 208쪽.

57. 우수영, 앞의 글, 2017, 295쪽.

58. 『東經大全』, 2, 「論學文」, 附錄, 「呪文」, 윤석산 역해, 49~112쪽 및 201쪽; 『海月神師法說』, 7, 「待人接

(崔瑩)과 재가녀 한씨 사이의 소생 최제우, 그의 출신배경은 그가 동학사상의 평등,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⁹ 최제우의 동학사상, 그 본연에 유의한다면 주체성 문제를 기점으로 삼아 여러 논의 문제를 상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무엇보다도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왔다.⁶⁰

해월 최시형이 법설에서 제시한 인시천·사인여천은 해석학적 순환을 거치면서 특히 소외받고 핍박받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언어로 작동하였다.⁶¹ 최시형이 도피 중일 때 충청도 청주 북이면 금암리에 사는 교도 서택순의 집 방문 시에 서택순의 며느리가 베 짜는 소리를 듣고 이는 며느리가 베를 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베를 찐다고 했던 말에 이어, 주로 엄마들이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경우를 두고 이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라고 했던 말은 동학사상에 입각한 아동존중사상의 자생적 등장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동학사상을 이어받은 천도교와 시천교는 아동존중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들의 사상 및 관점에는 옹당 동학사상이 기간정신으로 작동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할 것이다. 소년운동의 발생사적 배경, 그 정신적 좌표는 척양척왜의 기치와 함께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의 본의를 충실히 지키고자 했는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대응방식을 고수하는 가운데

物』, 천도교중앙총부 편, 74~84쪽; 『義菴聖師法說』, 7, 『大宗正義』, 천도교중앙총부 편, 387~404쪽.

59. 최병학, 앞의 글, 2018, 145~178쪽.

60.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관의 재발견』, 문음사, 1978;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4; 정혜경,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의미』,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1; 정혜경, 『한국교육사상』, 문음사, 2005; 이윤미, 「소파를 통하여 보는 교육사: 소파 방정환 교육론의 교육사적 의미」, 『아동과 권리』 3(2),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145~165쪽 참조. 동학의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는 대체로 천도교, 방정환, 소년해방, 계몽운동, 아동문학, 어린이날, 색동회, 오월회, 천도교 구과-신과, 출판운동, 예술문화운동, 소년운동단체, 아동교육사상, 유아교육사상, 일본유학, 교육이론의 자생성 등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분석을 통해 ① 천도교의 성립 과정과 애국계몽운동, ② 천도교의 3·1운동, ③ 연해주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의 대통령에 선임된 손병희, ④ 천도교 신과 최린의 자치운동(과 일제 야합), ⑤ 천도교의 6·10 만세운동, ⑥ 방정환이 주도한 천도교의 소년운동, ⑦ 천도교 청년회와 소년회가 벌인 청년·여성·어린이운동, ⑧ 잡지(『개벽』, 『신여성』) 발간을 통한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의 고취 등을 논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95~139쪽 참조.

61. 『海月神師法說』, 7, 『待人接物』, 천도교중앙총부 편, 74~84쪽.

근대 주체를 양성하는 역량을 확보하였는가, 소년운동의 지향에는 동학농민전쟁 이래의 항전의 유산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는가 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동학이 손병희의 천도교와 이용구의 시천교로 갈리면서 동학 초기의 기간정신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장 큰 특징은 일제 식민권력에 대한 저항 개념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천도교가 한국 소년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은 특징적인 장면이다. 동학의 교육사상에 대해, 당초 친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천도교청년회 간부로 활약하던 방정환은 소년운동의 가능성에 일찍 눈을 뜨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선회하였다.⁶² 이는 소년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 고장환이 시천교청년회와 오월회를 통해 소년운동을 펼쳤던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천도교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던 시천교는 방정환과 대척점에 서서 소년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 시천교도들은 사회주의 소년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⁶³

방정환은 경성천도교당(京城天道教堂)을 배경으로 일본유학생 중에 아동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이 색동회라는 아동문제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소년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방정환은 소년운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경남진주소년회(慶南晋州少年會)가 1919년 여름에 조직되어 소년들이 주체적으

62. 최명표, 「고장환의 소년운동과 아동문학」, 『건지인문학』 13,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29쪽.

63. 위의 글, 329쪽. 당초 친사회주의적 성향이었던 천도교의 방정환이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선회했던 빈 자리는 시천교의 고장환이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고장환은 시천교조 탄신기념 강연회에서 동학운동과 신아동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동학-시천교-신아동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장환, 「동학운동과 신아동」, 『동아일보』, 1933.12.19; 위의 논문, 337~339쪽에서 재인용), 고장환은 "어머니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아이들을 "때려도 피가 흐르고 살이 부풀어오르도록 때리는 이들"인 부모를 문제삼으면서 하늘처럼 대해야 할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절대 엄금할 것을 지적하였다(고장환, 「악착한 형벌: 이것이 테일 배척할 것」, 『매일신보』, 1926.4.7; 고장환, 「생명의 새 명절 조선의 <어린이날> 열세 돌을 맞으며(하)」, 『동아일보』, 1934.5.5; 위의 논문, 337~339쪽에서 재인용) 고장환은 천도교에 비해 열세였던 시천교의 청년운동을 이끌면서, 이념적 선명도를 드러내기에 적합한 사회주의 계열에 친연성을 보이는 가운데, 민족주의 계열이 선점한 의제를 회수하기 위한 각오로 소년운동에 관심을 쏟았다. (위의 글, 336쪽) 고장환은 시천교의 주요 청년 간부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근대 소년운동과 아동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인 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천교 측의 소년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은 천도교 계열에 대항한 연합소년운동단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위의 글, 351쪽) 친일의 늪에 깊이 빠진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것, 그 부조화를 처리하는 불편한 작업은 후대가 감당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로 독립만세운동에 나섰다가 모두 잡혀가 감옥에 갇힌 사실이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문제거리가 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그 이후에 등장한 소년회도 경남진주소년회와 동일 지향을 보이는 단체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음을 선제적으로 논급하였다. 말하자면 천도교소년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피하는 방식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후술할 바와 같이 일본의 소년운동이 철저히 모모타로주의(桃太郎主義)에 입각한 운동을 전개한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다. 방정환은 천도교의 소년운동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소년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학무국의 간섭을 받는데다가 부형의 반대에 직면한 것이기도 했음을 토로하였다.⁶⁴

방정환은 1921년⁶⁵ 4월에 13명의 소년 발기인이 경성천도교회(京城天道敎會)에서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면서 조선 500만 유소년에 대해 ①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풀어내어 어린 ‘사람’으로의 ‘인(人)’ ‘격(格)’을 찾고 지니고 옹호할 것, ② 재래의 쓸쓸하고 캄캄한 무지로부터 풀어내어 새로운 정서를 함양할 것, ③ 재래의 비사회적 악습으로부터 풀어내어 새 세상에 새사람이 되기에 마땅한 사회성을 기를 것을 주창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천도교소년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성질을 가지고 생긴 조선소년운동의 시초였다고 평가하였다.⁶⁶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결여된 지방에서는 소년회라면 무조건 불허하고 이미 조직된 소년회에 대해 어느 보통학교 교장은 이를 해산시키는 기괴한 일까지 벌어진다는 부형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의 전환을 주문하였다. 조선 소년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는데 모두가 나서지 못한다면 1925년 봄에 발생한 허시모사건(許時謨事件)과 같은 천인공노할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⁷

64. 방정환,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일)」, 『조선일보』, 1929.5.3.

65. 방정환은 1921년을 ‘대년(大年) 10년’이라고 표기했는데, 대년(大年)은 당시 일본의 연호인 대정(大正)을 일컫는다.

66. 방정환,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일)」, 『조선일보』, 1929.5.3.

67. 방정환,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오)」, 『조선일보』, 1929.5.12. 1925년에 내한한 헤이스머(Haysmer)=허시모(許時謨)는 평안남도 순안의 안식교에서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으로 있던 중 과수원에 무단 침입하여 사과를 따 먹은 12세 된 어린이를 붙잡아 두 뺨에다 염산으로 ‘도덕’이라는 글자를 써넣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선교사들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전위

1920년대의 천도교는 일제강점자들을 향한 직접·정치투쟁을 내건 천도교 구파와 타협·문화운동을 내건 천도교 신파로 분리되었는데, 천도교의 교권은 대체로 일제와 타협을 도모하는 천도교 신파가 갖고 있었다.⁶⁸ 천도교 내부의 갈등·분열 이후 신파는 천도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1905년 천도교 창건 이후 손병희의 정치적 지향과 그대로 일치한다.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문명개화파는 전형적인 문명개화론자들이었다.⁶⁹ 하지만 이는 일본을 배경과 기반으로 삼아 전개하는 문명개화론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기간정신에 입각한 동도주의적=자주적 문화계몽 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방정환은 천도교의 신·구파 대립지대에서 직접적 정치대결·정치활동보다는 아동중심주의에 입각한 소년운동·문화운동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천도교 신파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⁷⁰

방정환의 소년운동은 일본 유학과 작가들이 식민지의 근대문학을 주도했던 현상·현실과 맥을 같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동요의 태동기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전문작가가 아닌 소년운동가·동요작가들에게 일본 민요의 율격 7·5조는 지향할 대상이었지 지양할 리듬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⁷¹ 방정환처럼 소년운동가·동요작가들의 일본 체험이 확대되는 마당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방정환은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를 좋은 사람,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개체로 만들자고 호소하

로 규탄하면서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제 강점자들은 박춘금의 상애회(相愛會)를 내세워 조선의 권익옹호라는 미명 아래 대대적인 반미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3091>, 2020년 9월 10일 접속).

68. 이윤미, 『한국의 근대와 교육: 서구적 근대성을 넘어』, 문음사, 2006, 346~347쪽; 김대용, 「방정환의 소년운동 연구: 천도교 신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2), 한국교육사학회, 2011, 27~52쪽.

69. 김정인, 앞의 글, 2004, 63~64쪽.

70. 이윤미, 앞의 글, 2006, 346~347쪽.

71. 최명표, 앞의 글, 2015, 341쪽. 소년운동가·동요작가들이 일본 민요의 율격인 7·5조를 지양 아닌 지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식민지 아동의 미감과 심성이 일본적인 것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3·1 독립운동의 여파로 문화정치의 부산물이라 할 조선적인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담긴 노래들이 주로 가창되었지만, 그 조선적인 것은 고유한 독창성과 가치성보다는 일본적인 것에 대한 영향과 수렴의 견지에서 제시되고 유통되었다. 최현식, 「소국민의 음악, 소학생의 총력전: 1940년 전후 『초등창가』·『초등음악』의 문화정치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253~315쪽.

였다. 하지만 이는 식민권력의 교육욕망과 일치한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방정환의 소년운동은 태생적으로 식민지현실을 외면하라는 식민교육의 논리에 동화·흡수될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⁷² 이 지점에서 ‘도’와 ‘학’으로 용기한 ‘동학’은 감성적 주체의 탄생이자 삶의 주인의 등장이며, 그 핵심은 주체성과 자기에 대한 성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⁷³

교육사상사 연구에서는 방정환의 소년운동 및 교육관에 대해 이를 아동중심 교육의 자생적 움직임이자 진보주의 교육사상 도입·수용 이전의 진보교육 실천 과정이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⁷⁴ 하지만 방정환의 교육사상이 독특성과 창의성을 갖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를 자생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다.⁷⁵ 일본의 1920년대 다이쇼기는 동화-동요-동심의 탄생 및 황금시대, 예술운동 잡지의 종합스타일 완성기, 아동저널리즘의 활성화 단계, 순진한 어린이-순수한 동심이라는 어린이관의 성립·유포시대로 일컫기도 한다.⁷⁶ 방정환은 1920년 9월 15일 전후로 일본에 건너가, 도요대학(東洋大學)에서 청강생의 자격으로 공부하였다. 당시 방정환은 『개벽』의 동경특파원과 천도교청년회 동경지사회장직을 겸하고, 경성과 동경을 왕래하면서 『개벽』과 『천도교월보』를 통한 집필활동을 이어갔다. 천도교청년회에는 1921년 4월 소년부가 설치되어 1921년 5월 1일에는 천도교소년회가 창립되었는데, 방정환은 그 중심인물로서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방정환은 1922년 3월 20일에 도요대학을 퇴학하고, 천도교소년회의 창립 1주년을 맞아 1922년 5월 1일에 첫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치렀다. 1923년에는 아동문예잡

72. 김대용, 「방정환의 ‘어린이’와 ‘소년’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사학』 32(2), 한국교육사학회, 2010, 1~20쪽; 김대용, 앞의 글, 2011, 27~52쪽.

73. 김경호, 「낙세에 대한 열망—시천주와 후천개벽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2, 동학학회, 2017, 261~292쪽.

74.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관의 재발견』, 문음사, 1978; 안경식, 『소과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4.

75. 이윤미, 앞의 글, 2006, 348쪽.

76. 박훈,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 『동아연구』 4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135~162쪽; 박종진·최경희, 「1920년대 아동 자유화 운동과 아동 문예 잡지: 『어린이』와 『긴노후네』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33, 한국아동문학회, 2017, 89~118쪽.

지 『어린이』가 창간되었다.⁷⁷

동학의 시천주-인시천-인내천 개념은 방정환을 기점으로 아동존중사상 및 교육론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시선으로 아동중심주의 교육론을 먼저 제시했던 일본과 그 결을 크게 달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방정환은 1924년에 완전 귀국하기까지 일본 교육계 내부에서 각광을 받고 있던 아동중심 교육론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방정환은 도쿄대학의 모임인 자공회(子供會)와 정기 구연동화 행사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그가 어린이운동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1923.5.1.)한 것도 동경 유학시절이었다.⁷⁸ 이에 덧붙여, 근대아동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소파 방정환(小波 方定煥)’은 일본 근대아동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사자나미 이와야기오(小波 巖谷季雄)’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⁷⁹ 이와야 사자나미의 아동문학작품(1891)-근대아동잡지 『소년세계』(1895.1.1.)-구연동화활동(1896)은 최남선의 근대아동잡지 『소년』(1908.11.1.)과 방정환의 아동문학작품(1917)-구연동화활동(1920전후)-근대아동잡지 『어린이』(1923)에 앞서 제시된 것이었다.⁸⁰ 최남선과 방정환의 경우 소년들에게 계몽과 문명을 통한 근대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와야 사자나미의 정체는 그러한 계몽-문명 담론의 일반에 머무는

77. 金成妍, 『越境する文學: 朝鮮兒童文學の生成と日本兒童文學者による口演童話活動』, 東京: 花書院, 2010.

78. 이윤미, 앞의 글, 2006, 349쪽.

79. 巖谷小波, 『桃太郎主義の教育』, 東京: 東亜堂書房, 1915; 巖谷季雄, 『桃太郎主義教育新論』, 東京: 賢文館, 1931; 東京市社會教育課編, 『愛兒の躰けと育て』, 實業之日本社, 1924.

80. 김성연, 『小波 方定煥과 巖谷小波』,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205~224쪽; 진은경, 『최남선과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상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2018, 71~94쪽. 이와야 사자나미와 최남선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최남선의 <海에게서 少年에게>에 대해서는 새로운 독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루소의 『에밀』(1762)에도 등장하는 다니엘 디포(D. Defoe)의 『로빈슨 크루소』(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 1719)는 바다-소년의 제국주의적·군국주의적 욕망을 부추기는 소설로 독해할 수도 있다.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 출신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해석에 의하면 이는 식민욕망을 합리화하려는 제국의 속성을 보여준다. 로빈슨 크루소를 대표로 삼는 청교도(영국의 프로테스탄트)의 활동무대를 통해 서구 자본주의의 원형에 영국인 정복자의 상징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남선의 『소년』 창간호(1908.11)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海에게서 少年에게>에서는 소년-바다-포부-희망을 추동할 뿐 그 에너지의 향하는 곳, 자본주의적 욕망이나 제국의 사악한 힘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못했다.

인물이 아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야 사자나미의 근대아동잡지 『소년세계』는 국가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전쟁잡지였으며 『소년세계』(창간호) 게재 소설 〈히노마루〉를 통해서는 모모타로주의에 입각하여 아동의 성장을 천황의 전쟁에 출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포착하였다.⁸¹ 1920년대 일본의 아동 중심주의 내지는 아동교육론의 핵심은 이처럼 천황의 전쟁, 성전을 위해 심신의 단련-훈련을 본질로 삼는 모모타로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야 사자나미는 구원회나 강연회 등을 통해 일본 어린이들이 모모타로를 닮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15년 전쟁의 터널 안에서는 아예 “건설되어야 할 낙토(大東亞共榮圈)”와 “정복되어야 할 오니(鬼畜英米)”를 역설하는 그들의 민족영웅 모모타로를 직접 만날 수 있다.⁸²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을 논하면서 일본과의 비교 대조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도교-방정환-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야 사자나미를 선봉으로 전개된 모모타로주의의 작용 및 개입 여부를 판독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 전쟁연설집⁸³에서는 어린이 연설회의 방식으로 청일전쟁을 적개심 발양의 최적 소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국 병사의 머릿속 뇌수를 파낸 후 거기에 빨갛게 파랗게 색칠한 해골은 당시 일본의 전시아동에게 더없이 훌륭한 장난감 공이었다. 전시아동에게 연을 날리거나 팽이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아동 본연-고유의 놀이는 결코 권장할 수 없는 놀이었다. 전시아동은 그냥 아동이 아니라 연소한 황국민을 뜻하는 소국민(少國民)이었고 연소한 황군을 뜻하는 소년군(少年軍)이었다.⁸⁴ 동학 농민군전쟁/청일전쟁 이래의 전쟁연설 및 전쟁미담을 이어가는 그들의 정신 세계는 분명 병리학적 접근과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 진은경, 앞의 글, 2018, 71~94쪽.

82. 배묘정, 「전쟁의 기억과 민족 영웅의 탄생: 다카라즈카의 모모타로 재현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84,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0, 7~33쪽.

83. 天野馨,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演説会』, 東京: 国華堂, 1984; 麟児堂主人,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の夜話一名・日本男児の精神』, 東京: 三井新次郎, 1894; 麟児堂主人,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新演説』, 東京: 近園書店, 1895.

84. 김경리·권희주, 「전쟁을 유희화하는 아동의 연설과 소국민화」, 『외국학연구』 46,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8, 555~556쪽, 560쪽.

일본의 그림 잡지(『子供之友』, 1914, 『コドモノクニ』, 1922) 및 중국의 그림 잡지(『小朋友』, 1922)와 함께 조선에서도 그림 잡지(『어린이』, 1923)가 등장했다.⁸⁵ 그런데 방정환이 소년운동과 아동중심의 교육관을 표방했던 당시에도 일본의 문학작품은 익찬시가(翼賛詩歌)-전쟁협력시(戦争協力詩)-국민가요(國民歌謠)-소국민시(少國民詩) 등을 통해 “국민이 갖춰야 할 심정적 규범(國民のあるべき心情的規範)”을 확보하는 일이 목표였다. 특히 소국민은 중일전쟁~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에서 성전에 임할 아동을 향한 기대와 주문을 담은 말이었다. 1920년대 출생세대[전중파=戰中派] 및 1930년대 출생세대[불탄 자리 세대=焼け跡世代]는 모두 소국민으로 불렸다. 군국주의의 시대에는 소학생=소국민은 소학교=국민학교에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교과서나 도서를 통해 군함/전투기/전차/군대/전쟁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받았다.⁸⁶

방정환은 동경에 유학중인 1923년에 안데르센을 번안한 서양동화집을 발행하였고, 어린이날을 창설하였으며, 근대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으며, 어린이운동 단체인 색동회(1923.5.1.)를 조직하였다. 1925년에는 무저항적 문화운동에 전력하는 천도교-방정환 계열의 소년운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년운동단체인 오월회(1925.5.29.)가 조직되었는데, 오월회는 민족해방 노선에 합류하면서 소년의 기표에 함의된 정치성을 공론화하였고 일본을 소년운동의 주적으로 삼는 투쟁을 전개하였다.⁸⁷ 사회주의 계열의 투쟁노선에 비추어 볼 때 천도교-방정환 계열의 소년운동은 식민지의 특수현실을 괄호 안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탈정치적 성격의 문명·문화주의를 표방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당시 식민권력이 학문영역에서 자행했던 인식론적 폭력을 닮은 것이기도 했다.

85. 松居直, 「演題:〈未來を信じたとき〉, 占領下の子ども文化展特別講演會(抄録)」, 『熊本近代文学館報』 62, 熊本近代文学館, 2003, pp. 4~8 및 松居直, 「童画の世界—絵雑誌とその画家たち」, 関連講演會『松居直氏に聞く—絵雑誌・子ども・絵本』, 國立國會圖書館, 2008년9월27日, pp. 1~23.

86. <https://ja.wikipedia.org/wiki/少國民>. (2020년7월 30일 접속)

87. 최명표, 「오월회의 소년운동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1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135쪽, 137쪽.

V. 결론

신동엽 시인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서사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금강』 제9장, 1967)를 통해 동학농민혁명[“1894년, 돌에도 나무 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3·1독립운동[“하늘 물 한아름 떠다,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놓았다”]-4·19혁명[“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장을 찢고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으로 이어지는 보국안민과 척양적왜를 투쟁정신의 바탕으로 삼은 민족운동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형용하였다. 신동엽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한다. 시의 전경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과 ‘지붕 덮은 쇠항아리’로 형용되는 하늘이자 그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늘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동학의 초기정신/기간정신에 유의하는 가운데 동학농민혁명-3·1독립운동-4·19혁명의 계열을 성찰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학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 동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그 실체를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고, 그 연장선에서 동학의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나머지 여러 착오·오류를 범한 부분도 있다. 동학의 전기사상(기간정신)에 대한 이해를 등한히 하면서 후기사상의 행보와 궤적을 현실 밀착형으로 인식 대응하는 접근방식, 동학농민전쟁을 촉발시킨 일본군의 경복궁 불법 침범·감정 사태에 대한 논의 배제,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기간정신에 주목하면서도 벼슬아치나 호호세력의 수탈·착취·탐학의 문제를 동학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려는 전공분파적 인식 등은 동학사상에 관한 우리의 문제의식이 아직도 느슨하고도 안이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준다.⁸⁸ 동학의 기간정신과 거대동력이 상실된 데는 일본변수가 개입·작용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특히 1910년 이래

88. 최병학, 앞의 글, 2018.

팔아서는 안 될 것을 팔았고 누려서는 안 될 것을 누렸던 친일파·반민족행위자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21세기형 동학혁명의 방향과 과제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⁸⁹

흔히 3·1독립운동을 논할 때 민족 대표 33인을 얘기하고 그들이 낭독한 독립선언서에 주목한다.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유교 0명)을 두고 이런 저런 아전인수식의 해석도 넘쳐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3·1독립운동의 상징공간인 탑골공원에는 민족 대표 33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3·1독립운동 당시의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한 잔학한 살육 만행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행보와 대응은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일본학의 기술 과정은, 그들의 근대화를 상찬하는데 있지 않고, 그 근대화가 어떤 범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문명-개화-자주-독립-동양평화라는 그들의 세계관을 표상하는 언어는 침략과 전쟁을 긍정·미화하는 대표적인 표현법이다. 야만이 뒤집어쓴 화려한 가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문명이었다. 동학 연구와 교육사 서술의 경우에도 일본의 레토릭과 역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사상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과 대응, 그 행보와 궤적을 정밀 검토하는 가운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기간정신과 이에 따른 주체성 함양, 여성 및 아동 해방, 생태·환경 문제 등에 대해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짚어내는 논의를 정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학사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명개화론을 지향했고, 그 문명개화론은 신국가 건설 구상의 정교화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했다는 주장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지만, 나라가 이미 망했고 어떤 정치적 자기 동력도 작동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추진되었던 문명개화론과 실력양성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한국독립운동사의 구조적 한계는 점진론=문명개화론에 비해 급진론=무장투쟁론이 동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89. 임상욱, 「새로운 백년: 21세기 동학공동체의 방향과 과제」,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5~42쪽.

있다. 문명개화의 의미 규정은 상당부분 일본학의 관점과 자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교육문제 연구에서 점진론=문명개화론이 갖는 한계에 대한 통절한 문제의식이 요청되며, 그래야만 독립운동사의 심층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심층 연구는 동학사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응을 통해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학 연구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東經大全』, 『龍潭遺詞』, 『海月神師法說』, 『義菴聖師法說』, 『與猶堂全書』, 『修堂集』, 『梧下記聞』,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帝國新聞』
- 고장환, 「악착한 형벌: 이것이 데일 배척할 것」, 『매일신보』, 1926.4.7.
- _____, 「동학운동과 신아동」, 『동아일보』, 1933.12.19.
- _____, 「생명의 새 명절 조선의 <어린이날> 열세 돌을 맞으며(하)」, 『동아일보』, 1934.5.5.
- 기독교한국신문, 「3·1만세운동의 주체는 기층민중이었다»: 3·1만세운동 97년을 맞아 기독교독립운동을 재검토했다(중), 『기독교한국신문』, 2016.2.25.
- 김경리·권희주, 「전쟁을 유희화하는 아동의 연설과 소국민화」, 『외국학연구』 46,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8, 537~564쪽.
- 김경진·임상옥, 「동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접근 경로에 대한 연구: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6종에 나타난 동학의 내용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동학학회, 2013, 137~169쪽.
- 김경호, 「낙세에 대한 열망—시천주와 후천개벽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2, 동학학회, 2017, 261~292쪽.
- 김기현, 「1871년 영해동학혁명의 사료와 자취」,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7~73쪽.
- 김대용, 「방정환의 ‘어린이’와 ‘소년’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사학』 32(2), 한국교육사학회, 2010, 1~20쪽.
- _____, 「방정환의 소년운동 연구: 천도교 신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2), 한국교육사학회, 2011, 27~52쪽.
- 김성연, 「小波 方定煥과 巖谷小波」,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205~224쪽.
-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쇄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한국사상사학회, 2005, 213~240쪽.
-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 천도교세력의 친일문제」, 『동학연구』 9·10, 한국동학학회, 2001, 189~218쪽.
- _____, 「갑진개화운동의 정치사적 의미」, 『동학학보』 7, 동학학회, 2004, 63~93쪽.

- 김춘옥, 「동학 희곡에 나타난 인물 전봉준 연구」, 『동학학보』 33, 동학학회, 2014, 255~292쪽.
- _____, 「동학 대하소설에 나타난 해일의 형상화 연구」, 『동학학보』 36, 동학학회, 2015, 77~110쪽.
- 민족문제연구소 편, 『강제병합 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민족문제연구소, 2010.
- 박근섭, 「일본 시코쿠 변인과 홋카이도 변인 분석을 통한 동학농민전쟁 재인식」, 『인문과학』 119,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103~133쪽.
- 박종진·최경희, 「1920년대 아동 자유화 운동과 아동 문예 잡지: 『어린이』와 『긴노후네』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33, 한국아동문학회, 2017, 89~118쪽.
- 박종홍, 「최동희 역, 『현대역 동학경전』의 서문」(1961), 열암기념사업회이사회 편, 『박종홍전집Ⅶ』, 민음사, 1998, 208~210쪽
- 박훈, 「근대일본의 '어린이'관의 형성」, 『동아연구』 49,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135~162쪽.
- 방정환, 「어린이 노래」, 『개벽』 3, 1920, 88~89쪽.
- _____,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일)」, 『조선일보』, 1929.5.3.
- _____, 「조선소년운동의 역사적 고찰(오)」, 『조선일보』, 1929.5.12.
- 배모정, 「전쟁의 기억과 민족 영웅의 탄생: 다카라즈카의 모모타로 재현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84,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0, 7~33쪽.
- 손인수,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가치관의 재발견』, 문음사, 1978.
- 신동엽, 『금강』, 창비, 1967.
- 신좌섭, 「신좌섭-맹문재 대담(2019.8.16.): 신동엽 시인의 「금강」 읽기」, 『푸른사상』 가을호, 2019.
- 신진희, 「1894년 안동영장 김호준의 동학농민군 진압」, 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연합학술대회 『영호남 동학운동의 재조명』, 경북대학교 박물관, 2018.12.20, 85~105쪽.
- _____,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 『영남학』 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53~79쪽.
- 안경식, 『소과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학지사, 1994
- 오상준, 『동학문명론의 주체적 근대성: 오상준의 『초등교서』 다시읽기』, 정혜정 역 해, 모시는 사람들, 2019.
- 우수영, 「한국소설의 동학 담론」, 『동학학보』 43, 동학학보, 2017, 295~331쪽.
- 윤석산 역해, 『동경대전』, 동학사, 1996.

- 이건근, 「전기(傳記) 영화 <비바 자파타>(Viva Zapata!)에 유추한 전봉준 영화 그리기」, 『용봉인문논총』 4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85~212쪽.
- 이윤미, 「소파를 통하여 보는 교육사: 소파 방정환 교육론의 교육사적 의미」, 『아동과 권리』 3(2),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145~165쪽.
- _____, 『한국의 근대와 교육: 서구적 근대성을 넘어』, 문음사, 2006.
- 이이화, 「역사를 왜곡한 김용옥의 시나리오 개벽」, 『역사연구』 17, 역사학연구소, 1991, 393~396쪽.
- _____,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 _____, 「동학 농민군 역사 살려낸 향토사학자들」, 『한겨레』, 2011.1.23.
- 이재승,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민주법학』 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271~277쪽.
- 이호영, 「인덱스방식으로 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人·天 개념」, 『동학학보』 16, 동학학회, 2008, 5~34쪽.
- 일본교과서바라잡기 운동본부 편,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역사비평사, 2006.
- 임병택, 「갑오농민전쟁과 일본사회」, 『동학학보』 20, 동학학회, 2010, 71~118쪽.
- 임상욱, 「이필제와 최시형: 영해 동학 '혁명'의 선도적 근대성」, 『동학학보』 30, 동학학회, 2014, 211~246쪽.
- _____, 「새로운 백년: 21세기 동학공동체의 방향과 과제」,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2019, 5~42쪽.
- 임태홍, 「동학 연구 20년의 회고(1995-2014): 신관, 신비체험, 그리고 비교연구」,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61~92쪽.
- 전용호, 「김인환의 동학연구와 문학비평」, 『정신문화연구』 34(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21~149쪽.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의 역사적 의의」,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1.
- _____, 『한국교육사상』, 서울: 문음사, 2005.
- 조규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95~139쪽.
- 진은경, 「최남선과 이와야 사자나미의 소년상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2018, 71~94쪽.
- 천도교중앙총부 편, 『신사성사법설』,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6.
- 최명표, 「'오월회'의 소년운동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1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135~153쪽.

최명표, 「고장환의 소년운동과 아동문학」, 『건지인문학』 13,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28~353쪽.

최병학, 「동학과 트랜스-로컬, 주체와 공생의 성취 그 관계적 네오-휴머니즘: 영화 <동학, 수운 최제우>와 <개벽>을 중심으로」,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2),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45~178쪽.

최현식, 「소국민의 음악, 소학생의 총력전: 1940년 전후 『초등창가』·『초등음악』의 문화정치학」,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253~315쪽.

허수, 「해방 후 의미 손병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변천」,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3, 431~464쪽.

홍동현, 「1900~1910년대 동학교단 세력의 동학란에 대한 인식과 교단사 편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39~76쪽.

황위주, 「한말 지식인의 동향과 동학」, 『영남학』 6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7~51쪽.

황현, 김종익 역,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황현이 본 동학농민전쟁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2016.

金成妍, 『越境する文學: 朝鮮兒童文學の生成と日本兒童文學者による口演童話活動』, 東京: 花書院, 2010.

靑柳南冥, 『朝鮮獨立騷擾史論』, 京城: 朝鮮研究會, 1921.

巖谷小波, 『桃太郎主義の教育』, 東京: 東亜堂書房, 1915.

巖谷季雄, 『桃太郎主義教育新論』, 東京: 賢文館, 1931.

高橋亨, 『朝鮮の物語集附俚諺』, 京城: 日韓書房, 1910. 이시준·김광식·조은애·김영주 역, 『조선이야기집과 속담』, 박문사, 2016.

高橋亨, 「朝鮮佛教の歴史的依他性」,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pp. 171~194.

_____, 「儒教の有する宗教性」,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pp. 195~200.

中塚明·井上勝生·朴孟洙, 『東學農民戰爭と日本: もう一つの日清戰爭』, 東京: 高文研, 2013.

松居直, 「演題: <未來を信じたとき>, 占領下の子ども文化展特別講演會(抄録)」, 『熊本近代文学館報』 62, 熊本近代文学館, 2003, pp. 4~8.

_____, 「童画の世界—繪雑誌とその画家たち」, 関連講演會 『松居直氏に聞く—繪雑誌·子ども·絵本』,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2008年9月27日, pp. 1~23.

- 東京市社會教育課編, 『愛兒の躰けと育て』, 東京: 實業之日本社, 1924.
天野馨,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演説会』, 東京: 国華堂, 1984.
麟兒堂主人,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の夜話一名・日本男児の精神』, 東京: 三井新次郎, 1894.
麟兒堂主人, 『ちゃんちゃん征伐子供新演説』, 東京: 近園書店, 1895.
- 한국문집총간 (<http://www.itkc.or.kr>, 2018년 9월 1일 접속)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018년 9월 15일 접속)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2018년 9월 20일 접속)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년 9월 20일 접속)

Abstract

Review of the Research History of Donghak Thought:
Haneul, Saram, Kyoyook

Park, Kyoong-S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onghak Thought insisted by Choi Je-Woo, was also an ideological system that gave power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the guiding ideology of Bogook Anmin and Cheokyang Cheokwae. The initial spirit of saving the sick country through the Donghak Peasant War of 1894-95 and the name change of 1905 had no choice but to show hermeneutic refraction, and the key variable of that refraction was Japan. Through the study of Donghak, it is possible to secure a discussion space on child-centeredness as well as the problem of cultivating subjectivit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 can be said to be in critical reflection on whether the early spirit of the Donghak Thought has been faithfully implemented. Only when we can pay attention to the factors of interference from Japan acting on Donghak Thought will be able to properly continue a strict discussion on the issue of subjectivity, which is the core of the discourse of Donghak.

Keywords: Choi Je-Woo, Donghak Thought, Donghak Peasant War, hermeneutic refraction, issue of subjectivity.

논문 투고일 : 2020년 09월 30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8일
--